

크리스마스과 휴거의 의미: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를 영원히 갈라놓는 것
성경말씀: 살전5:4-9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23년을 마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연말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1년 동안의 시름,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음식, 휴가 등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있다. 지난 금요일, 한 형제님의 고백: “내년에 다시 회사 직무를 맡아 일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이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크리스마스같이 인간에게 전해진 전통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면 매우 유익하다.

신국야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두 번 오신다. 초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신약 성경의 기록이 있다. 지금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켰고 130년 전에 조선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와 조선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것이 가짜요, 허구 시스템이라면 유럽과 미국, 한국 등의 기독교 근간의 모든 시스템은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기독교,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는 인간의 자유, 번영이 있다. 다른 어떤 종교 시스템도 주지 못하는 일, 가장 잘 사는 국가, 시스템, 기독교,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미국 영국 한국 등 기독교 시스템 국가. 이슬람 불교 천주교 시스템 국가 자, 이제 우리는 초림을 훌쩍 뛰어넘어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살고 있다. 언제라도 휴거가 일어날 시점에 살고 있다.

오늘 성탄절 시즌에 < >, 데살로니가전서 4,5장 말씀, 휴거, 환난기,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분열,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 낮 사람과, 밤 사람, 이들의 운명, 이런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데살로니가전서, AD 53년경, 2차 선교 여행, 약 1달간 체류하면서 교회 설립(행17)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1:2-3), 이 교회의 문제 중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혹시 부활이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은 헛된 말장난이다. 딤후2:16-18 바울의 설명(4:13-18), 휴거와 부활 5:1-3, 휴거의 때와 시기, 주의 날은 밤의 도둑같이 온다, 4장 앞부분에서 그는 환난 전 휴거에 대해 말하였다. 환난 전 휴거 다음에는 7년 환난기가 온다.

성경에서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은 7년 환난기,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표현 주님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최대로 쏟아지는 때, 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 성경에서 주의 날은 대개는 환난기 표현

암5:20,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우므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5:1-3, 3절,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하나님 밖에서 살 때 갑작스러운 홍수, 유황불이 덮치듯이 파멸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고 사도 바울은 4-9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휴거의 목적, 환난기의 목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운명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성탄절 전날, 매우 기쁜 날이다. 오후에는 음악회도 있다.

목사로서 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 휴거의 의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책임, 운명 등에 대해 말씀을 강해하려 한다.

우리의 신분: 빛의 자녀, 낮의 자녀

5:4.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3절에는 파멸에 이르는 ‘그들’이 있다. 환난기에 들어가는 자들(물론 구원받는 자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파멸된다), 그러므로 휴거를 받는 ‘너희’와 파멸에 이르는 ‘그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너희는 형제들 즉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어떻게 '너희'와 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즉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떻게 분변되는가?

4-5절 말씀: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의 자식들(밤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빛의 자녀들(낮 사람들)이 되게 하신 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만 살전4:13-17이 말하듯이 휴거를 받는다.

어둠의 자식들은 환난기 고통에 들어간다(살후5:2-3). 대다수가 파멸된다.

5:4,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휴거를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하는 것,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이다.

빛과 어둠

빛: 282회(272 단수, 10회 복수), 어둠 162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창1:3-5,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
빛과 어둠, 낮과 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다.

성경에서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1:1-5, 11-12

요일1:5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믿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빛의 자녀가 된다.

마귀의 이름: 이 세상의 통치자(요12:31; 14:30), 엡2:2,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요12: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마귀와 세상 밑에 깔려서 모든 사람들이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다(엡2:1).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서 나타나셨다.

마4:14-17, 크리스마스의 의미

눅1:78-79(눅16:8, 빛의 자녀들)

살전5:5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

벧전2:9-10

빛의 자녀의 특징: 그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전에 휴거를 받는다.

어둠의 의미

어둠은 마귀의 거처이다. 성경에서 어둠은 영적 무지를 말한다.

고후4:6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상태: 어둠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한다(엡5:11).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여도 어둠에 속한 일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 요약(살전5:1-5)

구원받은 너희,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어둠 속에 있던 자들, 어둠의 행위들을 하던 자들

말 그대로 마귀의 자녀들, 이제는 빛으로 들어와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엡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매우 기쁜 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에게 묻는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가?

어둠에서 빛으로, 밤의 사람에서 낮의 사람으로

이런 사람의 특권(요일5:12-15)

어둠의 자식들

회개하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남아 있으면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어둠에 갇힌다.

유11-13

요12:35,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어둠에서 탈출해야 한다(12:46).

언제 해야 하는가? 오늘 해야 한다.

빛의 자녀들의 행위(5-8)

6절: 잠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 마귀가 하는 일, 좌익 종북 주사파 세력이 정권 잡지 못하게 기도, 올바른 투표

7절: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일, 소극적으로 잠자는 것, 적극적으로 술 취하는 것
다 밤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충고의 말: 이것은 험박의 말이 아니다. 밤에 잠자고 술 취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No!

너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이니 신분에 걸맞게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를 하지 말라. 빛에 속한 사람이 자꾸 어둠의 행위를 하면 구원의 확신을 잃는다.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는가? 머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투구로 써야 한다(8).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 육신의 행위, 죽은 행위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롬13:12,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엡5:8,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마5:14-16)

빛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9)

여기서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결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 통치자는 마귀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이다.

그분의 출생, 십자가 죽음, 부활로 인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영원히 신분과 운명이 갈리는 일이 생겼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휴거받을 수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빛의 자녀인가? 빛의 행위가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2023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고후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